

워크숍 2 (최대 50명)

새 시대, 새 걸음- 그 사이에: 팔정도에 관한 릴레이 스토리텔링

New Age, New Step—In Between: A Relay Storytelling Game of the Noble Eightfold Path

슈웨이 차이(Shu-Hui Tsai) / 번역 정옥 스님

요약문:

21세기는 변화가 많은 새로운 시대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옹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워크숍은 불교 문학에 관한 것으로 팔정도에 관한 릴레이 스토리텔링 게임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스토리텔링 게임은 지역사회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어떤 가치가 문학과 교육적 전통에 구체화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정직·헌신·미디어·권리·평등·사랑·카르마(업)·상상력 등의 가치 판단적 개념들을 다룰 것이다. 또한 개인의 가치 성향은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찰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부처님은 훌륭한 스토리텔러였다. 스토리텔링은 부처님의 중요한 설법 방법 중 하나였다. 이 워크숍에서 부처님이 스토리를 통해 법을 전한 방법과 불교 수행자로서 우리가 불교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한 독창적 창작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문학은 언제나 불법을 공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매개가 된다.

공명지조(共命之鳥)는 부처님이 전한 이야기이다:

옛날에 머리가 두 개 달린 새가 있었다. 흰색의 머리는 책임감이 있었고, 검은색의 머리는 불합리했다. 항상 먹이를 찾고 같이 먹자고 하는 쪽은 흰색의 머리였다. 어느날 검은색의 머리가 말했다. (이하 생략)

약력:

차이슈웨이(蔡淑慧, **Shu-Hui Tsai, AKA. Juyarn Tsai**)는 타이완의 타이난(臺南)에서 태어났다. 중국문화대학(中國文化大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제목은 「중국 불교 서사에 나타난 부처님 재세 시 8명의 여성에 대한 연구(漢譯佛典中佛陀時期八位女性敘事

研究)」이고, 또한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12명의 여성의 삶에서의 싯다르타』를 영문(역자 주: 영문제목 “*We’ll Always Be Connected-Siddhartha in Twelve Women’s lives*”)과 중문(역자 주: 중문제목 “*佛陀時代十二名女子生命的悉達多-《女問千秋》*”)으로 각각 출판했다. 교사, 제작자, 아나운서, 프리랜서 작가로서 방송일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고, 골든벨 상을 4차례 수상했다. 이 외에 시집과 그림책, 산문집 『우리는

언제나 부딪칠 것이다 (We Will Always Be Collided) 』와 10권의 불교 일러스트북 『육근 I - VI (Six Roots I - VI) 』 , 기린과 개미 시리즈 『사느냐, 죽느냐 I - III (To Be or Not To Be I-III)』 가 있다.